

경기일보

2018년 3월 14일 수요일 002면 종합

도, 신탄리역에 'DMZ 자전거 대여소' 설치

비무장지대 관광명소 '은륜투어'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과 연천군 신탄리역에 DMZ자전거 대여소가 설치돼 자전거를 타고 경기북부 DMZ 일원 주요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게 됐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과 연천군 신탄리역에 'DMZ 자전거 대여소' 설치했다. 이에 따라 임진각 평화누리과 연천 일원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은 보다 편리하게 자전거 체험을 하고, 자전거를 이용해 주변 관광을 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에서는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주변 2.8km, 대여소에서 반구정까지 왕복 7.2km(1시간 소요), 대여소에서 장산전망대 까지 왕복 16.1km(2시간 소요) 코스를 달릴 수 있다. 또 연천군 신탄리역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해 백마고지역 방향으로 왕복 13.4km(1시간20분), 연천역 방향으로 왕복 36.6km 코스(2시간 30분)를 달릴 수 있다. 특히 신탄리역 인근에는 페터널의 역고드름, 분단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열쇠전망대, 재인폭포, 연천역 급수탑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며 캠핑장·글램핑장·카라반 콘도 등 캠핑시설이 있어

숙박까지 가능하다. 올해 11월까지 상시 운영되는 임진각·신탄리역 대여소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경기북부 DMZ 일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전거 관광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관광공사 DMZ 관광사업팀(031-956-831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희기자

임진각 평화누리길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

경원선 신탄리역에 설치

임진각 평화누리길에서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DMZ 자전거 대여소'가 운영된다.

13일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광장과 연천군 경원선 신탄리역에 'DMZ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임진각 평화누리에서는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주변 2.8km, 대여소에서 반구정까지 왕복 7.1km, 대여소에서 장산전망대까지 16.1km를 자전거로 즐길 수 있다.

신탄리역에서는 강원 철원군 백마고지역 방향으로 왕복 13.4km, 연천역

방향으로 왕복 36.6km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

대여소에는 2인용 자전거와 유아·아동용 자전거도 비치해 온 가족이 함께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대여료는 시간당 3천 원, 하루 1만 원이다.

도와 관광공사는 11월까지 수~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여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함으로써 경기북부 DMZ 일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자전거 관광 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